

‘아이폰 듀오’ 흥행 기대감… 삼성D·LGD, OLED 수요 보증

애플, 올해 폴더블 점유율 25% 예상
삼성D ‘듀오’ OLED 사실상 단독공급
애플 향 물량 확대… 직접적 수혜

LGD, 아이폰18 프로 OLED 공급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 ‘수익개선’

애플이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와 아이폰18 프로 시리즈를 앞세워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모바일 OLED 공급 경쟁력도 부각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 듀오용 폴더블 OLED를 공급하고, LG디스플레이는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용 패널 공급을 확대하며 애플 공급망 내 입지를 넓히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이폰 듀오가 올해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25%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렌드포스도 올해 출하량을 약 500만대, 점유율을 24.8%로 예상했다.

기관별 전망에는 차이가 있지만 애플이



애플 ‘아이폰 듀오’.



/애플

출시 첫해부터 폴더블 시장 2위권에 진입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카운터포인트는 올해 말 글로벌 폴더블폰 누적 출하량이 1억대를 넘어선 뒤 내년에는 연간 출하량이 올해보다 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삼성디스플레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 듀오에 들어가는 폴더블 OLED를 사실상 단독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갤럭시 Z 시리즈에 이어 애플까지 폴

더블 OLED 공급처를 넓히게 됐다.

폴더블 OLED는 일반 스마트폰용 패널보다 기술 난도가 높다.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펴는 과정에서 주름과 내구성, 두께를 함께 관리해야 하고 안정적인 양산 수율도 확보해야 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9년 첫 갤럭시 폴드부터 폴더블 패널을 공급하며 양산 경험을 축적해왔다.

애플향 물량도 확대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아이폰 듀오용 OLED 소량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이달부터 월

100만대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전체 생산량은 700만대 후반으로 당초 목표로 거론된 800만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사양 모바일 OLED 기술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2K 해상도와 165Hz 주사율을 동시에 구현한 6.9형 OLED를 개발해 중국 비보의 게이밍 스마트폰에 공급하기로 했다. 픽셀 신호 배선과 구동칩 공정을 개선해 고해상도·고주사율을 구현하면서 소비전력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LG디스플레이는 아이폰18 프로·프로맥스용 OLED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 애플의 프리미엄 OLED 공급망을 담당하며 LTPO 기반 고사양 패널 비중을 늘리는 모습이다. 중국 BOE는 이번 신제품 공급망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는 애플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모바일 OLED 비중을 늘리며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을 매각하는 등 L

CD 비중을 줄이고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 데 이어 생산 효율과 원가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올해 2분기 OLED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57%까지 높아졌다.

다만 애플 신제품 효과가 실제 공급업체 실적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판매량과 공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아이폰 듀오는 256GB 기준 국내 출고가 329만원에 달하고 초기 공급 물량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아이폰 듀오의 초기 공급 제약이 불가피해 판매와 출하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폴더블 진입과 프리미엄 제품 확대는 고사양 OLED 수요를 한층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내 업체들이 이미 관련 기술과 양산 경험을 확보한 만큼 수요 확대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수율과 원가 경쟁력은 계속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9조 루마니아 전차 수주전… K2 현지화 ‘승부수’

전차 216대, 파생형 차량 76대 사업
현대로템, 독일·KNDS와 경쟁구도

65억 유로(약 9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차세대 주력전차 도입 사업이 경쟁입찰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지 생산·산업협력이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현대로템은 K2 수주 시 폴란드 생산기지를 활용하지 않고 루마니아에서 별도의 현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15일 루마니아 방산 전문매체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라두 미루차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전차 216대 도입 사업의 자국 방산업계 참여 방안 분석이 끝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루마니아는 NATO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구소련제 T-55 전차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산 M1A2 SEPv3 에이브람스 54대에 이어 별도로 주력전차 216대와 파생형 차량 76대를 도입한다. 사업비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고 최대 64억8800만 유로로 의회 승인을 마쳤다.

핵심은 자국 방위산업 육성과의 연계다. 경제부는 올해 초부터 전차 현지화 방

안을 분석하고 있다. 미루차 장관은 “작전·기술 요구조건은 이미 확정됐다”며 “국내 산업을 통한 사업 진행은 당연한 수순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펜스루마니아는 루마니아가 한국과 독일 전차를 검토해 왔으며 K2가 기술이전과 현지 생산 통합에서 높은 수준의 제안을 했다고 평가했다. 현대로템은 현지 시험평가와 실차 시연도 마쳤다. 서준모 현대로템 디펜스솔루션사업부장(전무)은 지난 6월 “늦어도 내년까지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며 빠른 납품과 성능, 현지화 전략을 K2의 강점으로 꼽았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에서 K2PL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업체와 공동개발을 진행하는 등 현지화 경험을 쌓고 있다. 다만 루마니아 수주 시에는 폴란드 생산기지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현지화를 추진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 기지를 활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루마니아에서 사업을 이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현지화 수준은 최종 구매 물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후보로는 K2와 독일 라인메탈의 KF51 판터, KNDS의 레오파르트2가 거론된다. 라인메탈은 지난 2024년 루마니아 군용차량 업체 오토메카니카 미디어슈 지분 72.5%를 인수해 생산·정비(MRO)망을 구축했다. 탄약·화약과 링스 장갑차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은 KF51 생산라인과는 별개다.

KNDS는 레오파르트2A8 도입국인 노르웨이와 리투아니아에서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노르웨이에는 연간 최대 36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완공했고, 리투아니아에도 최대 41대 규모의 조립시설을 구축 중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metro

추석엔 건강은, 풍계 선물하세요

JUNG KWAN JANG 정관장

추석 사은행사

2026.08.27 ~ 09.27

혜택 1 품목별 5~15% 할인(일부 품목 제외)

혜택 2 신규 가입 시 천복돈 3포 증정
※ 5만원 이상 구매 및 SMS 수신동의 Y 필수. 멤버스 1인회

혜택 3 삼성카드 Link 25/50만 원 이상 결제 시 1/2만 결제일 할인
※ 1인회, 비연속식, Monimo Link 대상 / 법인 체크, 선불, 충전, 기프트카드 간편결제 제외(상당페이 가능)

혜택 4 현대카드 M포인트 50%사용 (최대 5만 포인트)
※ 포인트 부족 시 최대 5만 포인트 내에서 보유한 포인트만큼 차감 / 법인, 기프트카드 및 간편결제 제외

JUNG KWAN JANG 정관장